

#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방식 놓고 하세월

### 광주시, 24일 중간 용역 보고...공공성vs수익성 놓고 줄다리기 예고 지역 주민들 “터딘 공장 이전, 개발계획에 주민 목소리 배제” 불만

주민 4238명이 공장 이전 청원서를 접수한 지 2년 4개월여만에 전남방직·일신방직 부지 개발 구상 첫 밑그림이 나온다. 역사적 보존을 강조하는 시민사회와 수익을 우선에 둔 개발업체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터딘 공장 이전에 잔뜩 뿔이 난 인근 주민의 반응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주민은 오랜 기간 전방·일신방직 가동으로 각종 환경오염 피해는 물론 지역개발 지연에 따른 땅값하락 등으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신속한 공장 이전과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일신방직 부지 활용 태스크포스(TF)는 오는 24일 회의를 열어 부지 활용 방안 중간 용역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북구 임동 주민 4238명은 2018년 10월 29일 공장 이전 청원서를 제출했다. 용역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탓에 개발업체가 용역 비용을 부담했지만, 천덕영 전남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한 교수 6명 모두 문화재 전문가로 선정해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게 광주시의 주장이다.

현재 일부 시민사회에선 이 땅이 일제 수탈의 아픔과 산업화 시기 여공들의 애환이 서린 근대 산업 문화 유산이라는 점에서 체현, 교육 공간 등 공공성을 확보한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또 사실상 마지막 광주 도심 노른자위 땅이라는 점에서, 아파트와 편의 시설 중심의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다면서 “그동안 전방·일신방직으로 다양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 등도 모색하고 있으며, 다만 역사적 가치가 떨어지는 시설까지 일방적으로 보존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방·일신방직 인근 주민들은 조만간 대책위원회 구성하고, 광주시 등을 상대로 조속한 공장 이전과 개발 계획 단계의 주민 참여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 주민은 “광주 대부분 지역은 모두 개발돼 땅값이 오르고, 깨끗한 주거지로 탈바꿈 했지만 임동 일대는 전방·일신방직에 가로막혀 아직도 낙후한 1980년대 모습을 유지하는 곳이 많다”면서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일단 현장을

로 나와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보고, 개발의 견부터 경청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는 “말 그대로 백지 상태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시민 의견 등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방은 지난해 7월 광주 북구 임동 공장 부지를 3660억 1400만원에 매각하기로 부동산 개발 업체와 계약했다. 인접한 일신방직도 3189억 8600여만원 규모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부지 규모는 전방의 경우 16만 1983㎡, 일신방직은 14만 2148㎡다. 전방 등은 매각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받고, 평동산단 내 공장조성 비용 등으로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 강점기 수탈과 산업화의 역사를 안고 있는 광주 북구 임동 100-1번지 일원(29만3290㎡) 전경. 광주시는 24일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용지, 도시관리계획상 일반공업지역인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 회의를 갖고 중간용역 결과 등을 공유한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 자연 재해 주택 전파 팬 7200만원 보상 받는다

### 전남도, ‘풍수해보험’ 지원 대폭 확대

전남도가 자연재해에 따른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자부담률을 대폭 낮췄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자연재난으로 주택과 온실, 상가, 공장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주는 정책 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당초 주택과 온실의 경우 보험료의 52.5%를 상가 및 공장의 경우 59%를 지원했으나 올해 정부지원금이 확대돼 각각 70%로 상향됐다. 특히 시·군에서 지정한 풍수해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재해취약 지역주민은 올해부터 신규로 87%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보험료는 주택 80㎡ 기준 약 6만원으로, 일반 도민의 경우 정부에서 4만2000원을 지원해 준다. 보상 혜택은 가입 및 보상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택 전파의 경우 약 7200만원의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80㎡면적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전파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연재난구조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600만원만 지급받는데 비해,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4.5배의 보험료를 지급받아 조기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고재영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기상이변 및 지구온난화로 각종 자연재난이 대형화 되고 있다”며 “저렴한 보험료로 자연재난에 미리 대비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 모두 풍수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리치엔코 광주 AI센터 개소 건강관리·반려동물 서비스

리치엔코가 광주에 자체 인공지능(AI) 센터를 개소하고, 임신·출산 건강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시와 리치엔코는 22일 광주 서구 금호동 한 건물에서 ‘리치엔코 광주 AI 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리치엔코는 ▲리치플래닛 ‘열달후에’ (임신·출산·육아 헬스케어 서비스) ▲꼬리(반려동물 생애주기 서비스) ▲바른팜(스마트팜 비즈니스) 등 3개 시스템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고도화 작업을 본격화한다.

앞으로 ‘열달 후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산부인과, 난임센터와 협업으로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꼬리’를 활용해 국내 최대 규모 동물 산업 데이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승표 리치엔코 대표는 “인공지능에 특화된 광주에서 센터를 운영해 헬스케어, 반려동물, 스마트팜 등 각각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2019년 10월부터 79개 인공지능 기관, 기업을 유지했으며 이 가운데 44개 기업이 법인, 사무실을 광주에 열었다.

## 광주시 버스전용차로 다음달부터 확대

### 11개 노선 67.4km로 늘려 무진로·상무로·북문로 변경

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를 확대·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8개 노선(47.2km)에서 11개 노선(67.4km)으로 확대된다.

교통량과 버스 이용객이 늘어난 무진로는 신설되고 상무로와 북문로는 늘어나거나 변경된다. 무진로 광천사거리~계수사거리 구간이 새롭게 운영된다.

상무로 운전저수지~들고개역 구간은 운전저수지~도산역까지 늘어난다. 북문로 동림동 장애인복지관에서 동운고가 방향으로 운영된 전용차로는

동운고에서 동림동 방향으로 변경된다.

남문로 소태역~동구정·남광주교차로~소태역, 필문로 서방사거리~조선대앞 사거리, 대남로 농성광장~남광주 사거리, 서문로 백운광장~광주대입구, 죽봉로 동운고가~농성광장, 서암로 서방사거리~경신여고 사거리 구간은 그대로 운영된다.

버스전용차로는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로 시간당 최대 100대 이상의 버스가 운행하거나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시간당 최대 3천명 이상인 경우 지정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7~9시, 오후 5시 30분~7시 30분이며, 위반하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광주세계수영대회 유산’ 수영대회 7월 열린다

### 일정 미정...마스터즈 동시 개최

광주시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 유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광주수영선수권대회와 마스터즈수영대회를 올해 7월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선수권대회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마스터즈는 7월 24~25일 열린다.

시는 지난달 대한수영연맹에 개최 신청서를 냈으며 연맹은 지난 19일 이를 수용했다.

개최 장소는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광주세계수영대회가 열린 광주 남부대 수영장이다.

종목은 경영·수구·다이빙·아티스틱 스윘밍 등

4개 종목이며, 참가 대상은 유·초등부와 일반부다. 수영(마스터즈)대회는 광주세계수영대회 개최 승인(2012년 10월) 시 ‘연 1회 이상 국내 대회를 지속해서 개최해야 한다’는 의결 사항을 반영해 추진됐다. 지난해 7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졌다.

시는 세계수영대회 유산 사업의 하나로 2024년 건립을 목표로 한국수영진흥센터도 추진 중이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대회 참가 선수들이 안심하고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추가모집** ▶ 입학문의 062)605-1114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과	모집인원	모집인원
인문사회	신학과	○	○
	한국어교육학과	○	○
사범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	○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1. 2. 22(월)~24(수)  
· 전형일: 2021. 2. 25(목)

**대학원 추가2차모집** ▶ 입학문의 605-1115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유아교육학과(D.Ed.)	○
일반대학원	박사	상담심리치료학과(D.C.S.)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신학과(Th.M.)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1. 2. 22(월)~24(수)  
· 전형일: 2021. 2. 25(목)

www.kwangshin.ac.kr

믿음이 있는 대학·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72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